

17 장_서원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

애들아, 할아버지와 함께 재미있는 놀이를 해보자

아랫목이 없어지면서 어른의 자리가 없어졌다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

이제는 이런 얘기가 나와도 모두 무감각한 지경이 돼버렸다.

교수님은 아랫목이 사라지면서 어른의 자리가 사라졌다고 비유를 하곤 한다. 그것이 아이들의 버릇없음을 설명하는 이유의 전부는 아니지만, 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생활 양식이 바뀌면서 어린이들이 노인 세대와 함께 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으니 어린이들이 어른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가질 리 없을 테고, 따라서 아이들이 노인에 대한 공경심이나 이해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터득될 기회가 없는 것이다.

노인에 대한, 어른에 대한 공경심과 이해심이 교실에서의 교육만으로 가능하다면 버릇없는 요즘 아이들을 탓하겠다. 하지만 교실의 교육이 갖는 한계를 안다면 아이들만 비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될 터.

서원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에서는 지역문화예술체험을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던 중 소외된 노인들에게는 즐겁게 문화를 체험하게 하고, 동시에 어린이들에게는 ‘어른의 존재’를

인식시킬 수 있게 하는 1 석 2 조의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된다. 어린이와 노인 세대가 함께 하는 지역문화 예술체험은 그렇게 시작됐다.

할아버지께 배우는 재미있는 전통놀이

어린이 30 명, 그리고 노인과 부모 30 여 명이 함께 하는 이 프로그램은 체계적으로 진행됐다. 먼저 세대간의 문화 관심거리를 모색하기 위해 지역의 특징적인 문화예술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솟대 만들기, 물레 돌리기, 토기 만들기처럼 쉽게 배울 수 있는 전통공예 체험을 시작으로 민화에 대해 배우고 함께 그려보는가 하면, 탈춤과 풍물을 어린이와 노인세대가 함께 체험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우리의 예상은 조금씩 빗나가기 시작했다. 노인세대가 전통문화체험에 관심이 있으리라는 사실은 당연히 맞아 들었지만, 새로운 미디어에만 잔뜩 관심이 있어 이 프로그램을 잘 소화할지 걱정했던 어린이들이 예상외로 적극성을 보이는 것이었다.

솟대가 무언지도 몰랐던 어린이들이 솟대를 만드는 데 열중했다. 물레 돌리기, 토기 만들기, 탈춤, 풍물은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투호, 윷놀이를 어르신들과 함께 하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를 배우고, 규칙을 지키는 자세를 배우는 아이들의 얼굴은 방안에 틀어박힌 욕심쟁이의 표정이 아니었다.

자, 할아버지의 솜씨를 보렴!

오늘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확실한 실력발휘를 하는 날이다. 물론 이미 솟대 만들기, 물레 돌리기, 민화 그리기, 윷놀이에서 멋진 솜씨를

보여주시고 어린이들에게 전통문화를 가르치는 역할을 하셨지만 오늘 프로그램은 확실히 다르다. 어린이들이 결코 흥내낼 수 없는, 박물관에서 구경할 수도 없었고, 어쩌면 한번도 직접 본 적이 없을 짚풀 공예를 보여주시는 날이기 때문이다.

도서관의 문화교실에는 아침부터 짚풀이 가득 쌓인다. 오랜만에 맡아보는 짚풀 향기에 모두들 취할 무렵, 청원군에서 오신 할아버지들께서 도착하신다. 짚풀 공예의 대가인 분들의 특별한 수업이 시작된단다. 가느다란 지푸라기가 몇 번의 손놀림 속에 튼튼한 새끼줄이 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어린이들이 감탄사를 연발한다. 할아버지의 손에서는 눈깜짝할 사이에 짚신이 만들어지는데, 어린이들의 손에서는 새끼줄 꼬는 것조차 쉽게 되지 않는다. 이쯤 되면 실망하고 찡그릴 만도 한데, 어떤 일인지 오늘은 그 어떤 날보다도 어린이들의 손이 채고, 귀가 쫑긋하다. 할아버지들의 설명이 어려울 법도 한데 아이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거린다.

문화와 예술이라는 도구가 아니었다면 재미있는 옛날이야기도 아닌 짚풀 이야기를 어린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들을 수 있었을까. 문화의 힘은 이렇게 조용히 어린이들의 마음에 흡수되고 있다.

이게 바로 탁본, 함께한 탁본 제작

어린이들의 입장에서는 미술시간에 판화를 해봤으니 탁본에도 흥미는 있겠지만 왜 탁본체험이 전통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는 이해하지 못할 터.

하지만 기와와 비석 등에 새겨진 아름다운 문양을 관찰하고 문양에 숨겨진 뜻과 의미를 통해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그 우수성을 깨달을 수 있다는

박물관 선생님의 설명이 이어지자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거린다. 이제 탁본 체험은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도구로 변한다. 기와의 문양에 화선지를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분무기로 물을 뿌린다. 수건으로 화선지를 꼭꼭 눌러서 탁본 대상물을 완전히 밀착시키고, 솔로 화선지 위를 가볍게 톡톡 쳐서 문양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한 곳에 여러 번 솔질을 하는 통에 종이가 상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물을 너무 많이 뿌려 화선지를 또 얻어가는 어린이도 있다.

마른 수건으로 종이의 물기를 적당히 제거하는 일도 쉽진 않다. 물기가 많으면 먹이 퍼지게 되고, 물기가 적으면 먹이 잘 묻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엔 솜방망이에 붓으로 먹을 찍어 적당히 묻힌 다음, 다른 깨끗한 솜방망이를 먹방망이와 마주 비벼 먹을 묻히고,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신문지에 몇 번 찍어본다. 이제 농도가 됐다 싶으면 먹방망이로 문양을 따라 톡톡 쳐서 문양이 드러나도록 한다.

역시나 아이들의 솜씨보다는 어른들의 솜씨가 월등하다. 우리의 전통문화가 정성을 중요 요소로 꼽는 만큼 당연한 일이다. 먹이 스며들어 완성된 화선지를 양손으로 가볍게 잡고 떼어 말리면 탁본이 완성된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준비물을 원 위치에 가지런히 정리하는 것까지 비로소 탁본의 완성이라는 설명에 아이들의 얼굴은 숙연해졌다. 아이들은 그렇게 조금씩 정성과 집중, 조심스러움이라는 전통문화의 기본 덕목을 체득해 가고 있었다.

전시장에 들여놓으니 내 솜씨도 훌륭한 작품이 되고

여름에 시작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겨울에 결실을 자랑하게 됐다. 고향을 상징하는 벽화가 한쪽 벽을 메운 전시장에 들어서면, 그 동안 체험했던 작품들이 각자의 이름을 달고 예술작품마냥 빛을 발하고 있다.

전시관을 가득 메운 ‘작품’들은 고작 몇 번의 체험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어낸 작은 수확이었지만 어린이들과 어르신들의 마음에는 뿌듯함이 배어나온다. 타인의 눈에야 어린이와 노인들의 대단한 솜씨 자랑쯤으로 여겨지겠지만, 이 전시장에 작품을 건 작가들의 마음속에는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다른 세대와 의사 소통하는 새로운 노하우까지, 길으로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성과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한국인의 향기를 풍기고 싶어요’

-교동초등학교 3학년 나하민 학생

"하민아, 엄마랑 같이 박물관 가지 않을래?"

"엄마, 꼭 가야 돼? 난 가기 싫은데."

어제 캠프에서 돌아와서 눈도 뜨기 싫었지만 엄마와 떨어져 있기 싫어서 하는 수 없이 엄마 뒤를 따라야만 했다.

우리가 처음 찾은 곳은 고인쇄박물관이었다. 그곳에는 직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할아버지께서 계셨다. 처음엔 지루하고 따분했지만 꼭 참고 열심히 들으니까 청주의 문화재, ‘직지’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우리의 직지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라는 사실을 증거가 없어 세계에 알리지 못 하는 게 참 안타까웠다.

그 다음으로 내가 좋아했던 건 공예관 체험이었다. 먼저 나무곤충을 만들었다. 나무로 작은 곤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나무곤충을 다 만든 뒤 리본공예를 했다. 곰에게 옷을 입히는 작업이다. 매일 엄마가 만들어준 인형만 가방에 달았었는데,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가방에 달아보니까 너무 예쁘고 멋있었다. 그리고, 그보다도 내가 가장 흥미있었던 프로그램은 전통예절과 다도였다. 전통예절에서는 절하는 법을 배웠는데 내가 지금까지 했던 절과는 달랐다. 이제부터는 잘못된 절 말고 우리나라 전통 방식의 절을 할 것이다. 그리고 차 마시는 법에서는 차를 우려내는 법부터 손님께 대접하는 법까지 자세히 배웠다. 도를 하면서 참 어려웠지만 집에 와서 엄마께 차를 우려드리며 다시 한번 연습했다. 그러면서 나는 깨달았다. 내가 요즘에 패스트푸드 만을 고집하는 것도 반성했다. 다도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서 엄마와 함께 차문화를 배우기로 했다.

나는 이 문화체험교실을 다니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 여러 친구들도 사귀고 많은 정보를 얻었다. 그리고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자랑스러움과 뿌듯함이 느껴졌다.

“애들아 박물관 같이 가자”

-학부모 이경영

한여름 무더위 속에 전해 듣게 된 '전통을 이어가는 생활예절 체험프로그램.' 무엇보다도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지역예술문화체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첫째 날 나눠준 커리큘럼을 보니, 정보를 꿰고 있지 않으면 좀처럼 회원으로 가입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유익한 프로그램이 가득찬 활동중심의 수업이 기대가 되었다. 서원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와 청주시립정보도서관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교양을 쌓게 하는 아주 맛있는 수업이었다. 국립청주박물관 전시실에서 선사시대부터 삼국,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까지 자원봉사 도우미 선생님의 자세한 안내와 설명은 우리 전통 문화를 이해하는데 한 걸음 앞서가게 한 흥미로운 시간이었다. 이제부터는 나 역시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듣고 배웠던 우리 역사 이야기를 유물을 보며 자신 있게 소개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책에서만 배웠던 교과서적 이론을 하나하나 내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었던 즐거운 체험은, 이 여름 나에게 배달된 가장 신선한 선물이었다. 이 선물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배달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통문화 체험을 마치며’

-용성초등학교 2학년 김지민 학생

즐겁고 신나는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던 중에 이웃집 언니가 전통문화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을 알려 주었습니다. 박물관 관람도 하고 탁본과 직지 인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또 차 우리는 방법, 절 하는 방법, 다식 만드는 방법, 차꽃 만드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전통 문화와 예절을 배웠습니다.

박물관을 관람할 때,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와 슬기가 담긴 물건들을 도우미 선생님께서 알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이해하기가 쉬었습니다. 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 기술인 직지를 보고 우리의 조상님들의 훌륭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노력해서 조상님의 훌륭한 후손이 돼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훌륭한 문화와 전통 예절을 배우면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겸손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배우고 체험한 것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전통을 이어가는 생활예절체험’

-학부모 김태희

아이와 함께 한 지역문화체험은 정말 유익한 방학생활과 더불어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청주에 온 지 이제 3 년. 작은 도시의 답답함과 조용함이 불거리, 집할 거리의 한계가 느껴졌는데, 용암동에 살고 있는 우리 가족은 시립정보도서관이 생기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정보와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또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방학 프로그램인 ‘세대간 문화체험활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와 함께한 직지의 탁본작업과 자원봉사자로 나선 퇴직하신 교장선생님의 설명으로 직지의 중요성을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공예관에서의 나무공예, 한지공예, 리본공예와 국립박물관에서의 생활예절, 다도체험을 통해서도 예절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었고 다시 한번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로서 아이와 함께 여러 가지 전통문화체험을 같이 할 수 있어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천방지축인 여러 아이들을 인솔해주신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따뜻하게 보살펴주신 어르신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드립니다.

충북 청주지역 서원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와 청주시립정보도서관이 함께 진행한 ‘세대가 함께하는 창작활동’

서원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 & 청주시립정보도서관